

# 팬은 신나고 선수는 힘든 '세계 랭킹제'

### 국제배구연맹 새 시스템 도입... 이달부터 시행 약팀이 강팀 이기면 더 많은 포인트 얻는 제도

국제배구연맹(FIVB)이 포인트로 순위를 정하는 새로운 국가별 세계 랭킹을 이달 1일 도입했다.

각종 국제 대회에서 한 나라가 거둔 성적과 팀 간 상대 전적을 알고리즘으로 계량화하고, 이를 실제 경기 결과와 비교해 랭킹 포인트를 배분하는 제도다.

매 경기는 물론 세트의 결과가 랭킹 포인트에 반영되고, 약팀이 강팀을 이기면 더 많은 포인트를 얻는다.

이에 따라 팬들은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선수들은 매 경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더욱 피곤해졌다.

FIVB는 1월 31일 자 예전 세계 랭킹에 따라 2020년 도쿄올림픽 조 편성을 마무리했다. 이때 올림픽 본선

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 대표팀의 랭킹은 9위였다.

2월 1일 도입된 새 세계랭킹에선 10위(261점)로 한 계단 내려갔다. 한국과 같은 조에서 올림픽 예선을 치르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순위는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FIVB는 홈페이지에서 "222개 나라의 순위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새 랭킹제를 도입했다"며 "예전보다 역동적인 세계랭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FIVB는 먼저 올림픽(50), 세계선수권대회(45),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40), 올림픽 예선전·월드컵·대륙별 선수권대회(이상 35) 등 주관 대회의 가중치를 다르게 조정했다.

이러 대결하는 A와 B 팀의 역대

특점, 상대 전적 등을 기초로 세트스코어 3-0, 3-1, 3-2로 이겼을 때, 2-3, 1-3, 0-3으로 졌을 때 등 6가지 시나리오를 알고리즘으로 체계화했다.

실제 경기 결과와 이 알고리즘을 비교해 예상 점수를 더 나은 성적을 낸 팀이 랭킹 포인트를 얻고, 기대를 밑돈 팀은 포인트를 잃는다.

승리한 팀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랭킹 포인트를 추가한다. 약팀은 강팀을 좀 더 완벽하게 제압할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쌓는다.

대한배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4일 "배구 세계랭킹은 올림픽 예선전 출전과 조 편성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항목"이라며 "새로운 세계랭킹에 따라 선수들은 매 경기 승패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어 예전보다 더욱더 힘들게 경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세계랭킹 포인트를 수확하고 순위를 꾸준히 유리하려면 FIVB 주관

대회에도 자주 나가야 한다.

FIVB는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FIVB 주관 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팀의 포인트를 50점 차감하고, 세계랭킹 포인트가 20점 미만인 국가들은 랭킹 목록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순위 목록에서 빠진 국가는 올림픽 출전을 꿈꿀 수도 없다.

올해에도 VNL 여자대회(5~6월), 아시아배구연맹(AVC)컵 남자대회(7월), 도쿄올림픽(7~8월), AVC컵 여자대회(9월) 등 굵직한 대회가 잇달아 열린다.

올림픽 3회 연속 본선에 진출한 여자 대표팀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24년 만의 올림픽 본선 복귀를 향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남자 대표팀에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세계랭킹을 끌어올리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면 새로운 랭킹제에 잘 적응해야 한다.

# 9연승 주역 펠리페·최다득점 양효진 MVP

### 프로배구 4라운드 최우수선수



우리카드 펠리페, 현대건설 양효진.

프로배구 우리카드의 외국인 선수 펠리페 안톤 반데로(32)와 현대건설의 센터 양효진(31)이 4라운드 남녀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펠리페는 4일 한국배구연맹이 발표한 남자부 4라운드 MVP 투표에서 30표 중 19표를 얻어 같은 팀 동료 노재욱(5표)과 나경복(4표)을 제쳤다.

그는 도드람 2019-2020 V리그 4라운드 6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4라운드 득점 부문 3위(137점), 공격 성공률 2위(54.03%)를 기록하며 필렐 날았다.

우리카드는 펠리페의 활약 속에 4라운드 전승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우리카드는 현재 창단 이후 최다인 9연승을 기록 중이다.

여자부에선 양효진이 기자단 투표 30표 중 19표를 받아 GS칼텍스 이

소영(9표), 현대건설 센터 이다영(1표)을 제쳤다.

양효진은 4라운드 5경기에서 득점 5위(98점), 공격 성공률 2위(41.10%), 블로킹 1위(세트당 평균 1.25개)를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흥국생명과 경기에선 개인 통산 5449득점을 기록하며 팀 선배 황연주가 갖고 있던 여자부 역대 최다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현대건설은 양효진의 활약 속에 4라운드에서 4승 1패로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 '물방망이' 토론토, 류현진 어떻게 도울까

### 작년 팀 타율 MLB 꼴찌 0.236

ESPN은 랜덜 그리치와 같은 간판타자의 타율 개선과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보 비셋, 캐빈 비치오, 루르데스 구리엘 주니어 등 젊은 유망주들의 성장을 앞세워 작년보다 나은 팀 타율을 올려야 토론토의 반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류현진은 다저스 시절 유능한 타자들의 도움을 적지 않게 받았다. 저스틴 터너, 맥스 먼시, 코디 벨린저 등 '도우미'들이 공수에서 류현진의 승리 수확에 큰 힘을 보탤었다.

다저스는 지난해 류현진이 등판할 때마다 평균 5.07점을 지원했다. 작년 토론토의 경기당 평균 득점 4.48점보다 높다.

2일 미국으로 출국해 스프링캠프를 준비하는 류현진은 새 팀에 첫발을 내딛는 것에 "특별한 건 없다"면서도 "토론토 구단 분위기에 적응하는 건 중요하다"고 각오를 보였다.

건강하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을 지난해에 입증한 만큼, 류현진이 캐나다 토론토,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정착하려면 동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토론토 방망이가 '뺑 야구' 대신 정교한 득점 야구를 펼친다면 팀 에이스 류현진의 적응도 한결 수월해진다.

ESPN은 랜덜 그리치와 같은 간판타자의 타율 개선과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보 비셋, 캐빈 비치오, 루르데스 구리엘 주니어 등 젊은 유망주들의 성장을 앞세워 작년보다 나은 팀 타율을 올려야 토론토의 반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류현진은 다저스 시절 유능한 타자들의 도움을 적지 않게 받았다. 저스틴 터너, 맥스 먼시, 코디 벨린저 등 '도우미'들이 공수에서 류현진의 승리 수확에 큰 힘을 보탤었다.

다저스는 지난해 류현진이 등판할 때마다 평균 5.07점을 지원했다. 작년 토론토의 경기당 평균 득점 4.48점보다 높다.

2일 미국으로 출국해 스프링캠프를 준비하는 류현진은 새 팀에 첫발을 내딛는 것에 "특별한 건 없다"면서도 "토론토 구단 분위기에 적응하는 건 중요하다"고 각오를 보였다.

건강하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을 지난해에 입증한 만큼, 류현진이 캐나다 토론토,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정착하려면 동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토론토 방망이가 '뺑 야구' 대신 정교한 득점 야구를 펼친다면 팀 에이스 류현진의 적응도 한결 수월해진다.

# 2010년대 ACL 최고의 팀 '전북 현대' 후보에 올라

최근 프로축구 K리그 3년 연속 우승 등 '절대 1강'으로 군림하는 전북 현대가 '2010년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최고의 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AFC는 3일(한국시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최상위 클럽 대항전인 ACL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인 팀을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5개 클럽을 추려 후보로 발표했고, 한국 클럽으로는 전북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전북은 최강희 감독이 이끌던 2016년 우승을 차지하며 10년 만에 ACL 정상을 탈환했고, 2011년에는 준우승한 바 있다.

AFC는 "2016년 우승 이후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전북은 항상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라고 평가했다.

전북 외에 2019년 우승팀인 알 힐랄(사우디아라비아), 2013-2015년 정상에 오른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 2011년 챔피언 알 사드(카타르), 2017년 트로피를 들어 올린 우라와 레드(일본)가 후보로 경쟁한다.

4일 오전 현재 알 힐랄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제는 도쿄올림픽을 향해'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 본선에 진출한 남녀 탁구 대표팀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탁구대표팀은 3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와 7월 도쿄 올림픽을 준비한다.

# 에이스 신유빈 "탁구에 올인 하려고요"

고교 진학 대신 실업행 선택

여자 탁구의 '10대 에이스' 신유빈(16·수원 청명중 졸업·사진)은 "탁구에 '올인' 하기 위해 실업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신유빈은 최근 포르투갈에서 열린 단체전 세계예선에서 여자 대표팀의 도쿄행 티켓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이어 고교 진학 대신 실업팀 입단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주목받았다. 여자탁구 명문 대한항공이 신유빈 영입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신유빈은 "탁구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실업팀에 입단하고 싶다고 아빠(신수현 수원시탁구협회 전무)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다"면서 "좋아하는 탁구에 '올인' 할 수 있으니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조기 실업행을 우려하는 팬

들도 적지 않다. 어찌 됐건 남들 다가는 고등학교 과정은 끝낸 뒤에 탁구에 집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유빈은 "책상에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 태양광 발전

###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

전기요금 "확" 줄이기

↓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

##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2019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공사실적 1위

새해에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www.jeusolar.co.kr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